

범죄 걱정 줄이고 감성 더했다... 금천구, 호암로 안심 지하보도 새단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호암로 안심 지하보도 조성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민관협치형 생활안전 개선 사례다.

구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하보도를 단순 통행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생활 공간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 호암로 지하보도는 벽면 타일 노후화와 잊은 결로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조도가 낮아 보행 불편과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면적인 환경 개선에 나섰다.

구는 2025년 3월부터 6일까지 사업 제안자와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디자인 설계를 진행했고,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 의견이 설계와 시공 전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호암로 지하보도는 벽면 타일 노후화와 잊은 결로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조도가 낮아 보행 불편과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타일과 천장을 개선하고, 경관 조명과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금천 9경'을 담은 그림 타일을 활용해 문화장식 벽을 조성해 어둡고 삐딱했던 공간을 밝고 감성적인 보행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또한, 출입부 캐노피와 조명도 정비해 외부 접근성을 높이고, 보행 공간의 이미지를 보다 세련되게 개선했다.

지하보도를 이용한 주민은 "어둡고 답답했던 지하보도가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천장 구조 또한 개선돼 이용할 때 답답함이 크게 줄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정비를 통해 지하보도 내 벽면

강남구, 스크린파크골프장 포함한 복합공간 '메타스페이스' 조성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노인 종합복지관(삼성로 628) 5층에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복합공간 '메타스페이스(Meta Space)'를 조성하고,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공간은 2022년부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온 '강남메타버스체험관'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여가·건강·학습 기능을 통합한 실용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바꿨다.

162㎡ 규모로 신체존(파크룸), 인지존(라운지), 교육존(클래스룸)으로 구성됐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신체존(파크룸)'에는 최근 시니어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린파크골프장(1실)을 설치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한 것이다. 시범 운영 후 2월부터 초·중급 강좌 및 자율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메타버스 체험 공간은 '인지존(라운지)'으로 이름을 바꾸고 디지털 친화형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에서는 특수 고글을 활용한 가

상현실 체험, 모션 인식 게임 등 메타버스 콘텐츠를 보다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기술을 익히는 데 심리적 장벽

이 높은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일상 속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의 새로운 변화가 어르신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여가 선택지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

신들이 더 자주,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배달+ 땡겨요, 시민 인지도·소상공인 만족도 모두 높아져

땡겨요, 시장 점유율 7.77% 매출액 1,340억 원 돌파...·공공배달앱 중 가장 빠른 성장세 기록

땡겨요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상품권 연계 혜택이 시민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확인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2025년 11월 기준)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1월~11월)으로 지난해 동기(370억 원) 대비 262% 상승했다.

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 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20.9%)', '서울시상품권

아 정체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86.0%)'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목)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개최한 바 있다.

이장성 기자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6천호 모집

전월세 보증금 최대 6천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12.17.(수)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 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 II)'

과 연계한 물량이며 올해 총 700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을 물색하여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 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돋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선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 대상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기존 구원수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는 12월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12월 29일(월)~31일(수)까지 SH 누리집(www.i-s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

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026년 3월 19일(목)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 가능 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대상 주택을 물색하여 신사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목)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 대상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한, 기존 구원수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범위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9일 "원터 링(Winter Ring)"으로 거듭나

개장식...2026 동계올림픽 출전선수 차준환·심석희 참석, 시민과 함께 축하 이벤트

올해로 19번째 겨울을 맞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19일(금), 시민 곁으로 다시 찾아온다. 입장료는 2004년 첫 개장부터 변함없는 1,000원으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스케이트장은 19일(금) 17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8일(일)까지 총 52일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일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 보관함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원터 링(Winter Ring)'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해 밝고 경쾌한 축제 분위기를 강화했다. 변화된 디자인과 확장된 편의 공간을 갖춘 스케이트장은 도심 속 겨울 놀이터로 거듭나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5 서울원터페스티'와 함께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원터 링(Winter Ring)'은 바쁘게 스쳐 지나갔던 도심 속 일상 공간인 서울광장을 밟은 노란색 빛

을 담은 마름모 형태의 링으로 둘러 따스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개장식은 12월 19일(금) 17시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타악기 퍼포먼스 그룹 '리퍼커션'의 공연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피겨스케이팅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심석희·차준환 선수와 차준환 선수의 친구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축하공연에 참여해 열광적인 응원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 특별한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말·크리스마스 이브·송년제야 등 시기별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로맨틱한 프리포즈 이벤트와 캐슬 스키, 새해맞이 송년제 야 카운트다운과 디제잉파티, 케이팝 댄스공연 등 연말연시 분위기를 살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 이용권, 'DSP(디스커버서울패스)' 소지자는 무료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장터에서는 군고마·군발 등 주식 간식부터 떡기·고구마·박대·감오징어와 같은 신선한 농수산물, 그리고 꽃게장·새우장·수산밀키트·라면세트·과자류·치즈·식혜 등 가공품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평일에는 군산 직거래 장터가, 주말에는 전북 14개 시·군의 특색있는 장터가 번갈아 열려 주마다 새로운 품목을 만나는 재미도 더해진다.

이 외에도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 특별한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말·크리스마스 이브·송년제야 등 시기별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로맨틱한 프리포즈 이벤트와 캐슬 스키, 새해맞이 송년제 야 카운트다운과 디제잉파티, 케이팝 댄스공연 등 연말연시 분위기를 살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 이용권, 'DSP(디스커버서울패스)' 소지자는 무료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